DOI: https://doi.org/10.28977/jbtr.2013.4.32.205

<번역 논문>

과다한 표현으로 전달되는 정보[1)]

-성서 히브리어 이야기에 사용된 참여자 지시의 문학적 기능-

러셀 웽어*
김유기 역**

1. 들어가는 말[2)]

성서 히브리어는 이야기에 이미 소개된 참여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시한다. 동사의 형태에 인칭, 성, 수가 드러나므로 일단 어떤 인물이 소개되면 그 인물이 주어로 나오는 일련의 사건은 동사로만 이어져 나갈 수 있다(예, 삿 15:4-5; 왕상 18:31-34). 참여자를 구분하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현상이 흔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두 남성 화자 사이의 대화에서 인용문의 틀은 단순히 "그리고 그가 말했고… 그리고 그가 말했다"(와요메르… 와요메르, 예, 창 18:27-32; 27:34-36; 32:26-28; 33:5-8; 왕상 13:14-18; 18:43-44; 20:14; 왕하 3:7-8)로 나온다. 초점 구문의 경우 독립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예, 삿 14:3하반, 여기에서는 초점을 표시하기 위해 주어와 목적어 모두 독립 인칭 대명사로 표현했다). 혹은 시작점을 표시하기 위해서도 독립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예, 수 2:8). 그러나 때로 저자는 동사의 지시 대상이 분명한데도 수고스럽게 명사구(때로는 복합 명사구)를 사용함으로써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반복해 참여자를 지시하기도 한다. 이런 지나친 설명은 영어에서는 투박하고 서투르다는 느낌이 들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절묘한 문학적 기법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마치 영화에서, 부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야기의 흐름에 매우 중요한 장면을 확대해서 보

* SIL 소속의 번역 자문 위원으로 현재 서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다.
** 서울여자대학교 조교수, 구약학.

1) Rachelle Wenger, "Redundancy is Information: The Literary Function of Participant Reference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The Bible Translator* 63:4 (October 2012), 179-184.

2) [저자 주] 모든 번역은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저자의 번역이다.
[역자 주] 이 번역 논문에서 성서 본문은 저자의 영어 번역을 우리말로 다시 옮긴다.

여주는 것과 유사한 기법이다.

2. 히브리어 참여자 과다 지시의 기능

예를 들어 이 기법은 야곱 이야기에 나타난다. 라반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 "나의 오빠"(창 27:43)로 처음 언급되며 28장과 29장에서 "외삼촌"이라는 칭호로 불리다가 30장에서는 단순히 "라반"이라 불린다. 그러나 창세기 31:20에서는 갑자기 "아람인 라반"이라 불리며 이 칭호는 24절에서 반복된다. 아람인은 구약 성서의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의 적으로 나타난다(예를 들어 다음 구절을 보라. 삼하 8:3-13; 10:6-19; 왕상 11:23-25; 20; 22; 왕하 5:2; 6:8-7:16; 8:11-13, 28-29; 9:14-15; 12:17-18; 13:3-7, 17-19; 15:37; 16:5-9; 24:2; 대상 2:23; 18:5-6; 19:6-19; 대하 18; 22:5-6; 24:23-25; 28:5, 23; 시 60 표제; 사 7:1-6; 9:11-12; 렘 35:11; 암 1:3-5). 25:20에 나오는 리브가의 계보에 라반의 국적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독자는 이미 라반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라반의 국적이 별안간 다시 등장함으로써 외삼촌 라반에서 적 라반으로 이야기의 전환이 일어난다. 앞서 전개된 가족 내부의 다툼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며 군사 용어(바라크 "달아나다", 라다프 "추격하다", 셰부오트 헤레브 "칼로 사로잡힌 사람들", 가잘 "약탈하다")가 사용된다. 족장들이 난투극을 벌이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영토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침략자에 대해 저주를 선언한다. 과다한 표현이 실제로는 중요한 부가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조금 다른 예가 여호수아 9장에 나타난다. 이스라엘인은 가나안 부족들에 대항하여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진다. 어떤 사신들이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요청한다. 이들이 정말 자신들 말처럼 먼 지방에서 온 것일까? 아니면 속임수일까? 독자는 3-4절을 읽고 이것이 사실은 속임수라는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정보를 모른다. 그들의 판단 근거는 해어진 옷과 곰팡이 난 빵이라는 정황 증거(4-5절)와 사신들의 주장(6절)뿐이다. 그 후 7절에서는 지금껏 사신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지 않던 명칭이 도입된다. 이 명칭은 1절에서 그 땅의 여러 부족 중 한 부족 이름으로 소개된 적이 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히위인들에게 말했다." "히위인들"이라는 명칭은 절묘하게 긴장을 고조시킨다. 표준 성서 히브리어 담화 문법에 따르면 여기서 대명사가 사용될 수 있다(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명사구가 필요했다면 앞 구절에 나왔던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용어가 다시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히위인을 멸망시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분명히 말했음을 독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히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사신들을 적으로 규정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 사신들이 적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몰랐지만 독자에게는 이 사실이 새로운 정보가 아닌 중요한 사실로서 강조되고 있다.

또 다른 예가 여호수아 14:6-14에서 발견된다. 여기에서는 유다 영토 안에 갈렙에게 할당된 땅에 관한 논의가 나온다. 갈렙은 6절에서 "그니스인 여분네의 아들"로 소개된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땅을 달라는 그의 요구와 그가 제시한 이유(다른 정탐꾼의 불신과 대조되는 신앙심, 모세의 약속)가 나온다. 그 후 14절에서는 갑자기 앞서 갈렙을 수식하던 긴 수식어를 다시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긴 칭호가 사용된다. "그래서 헤브론은 오늘날까지 그니스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었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논쟁이 있긴 하지만 갈렙은 아마도 이스라엘인이었던 것 같다. Budd (2002, 144), Milgrom (1990, 224, 391), Walton and Matthews (1997) 등 많은 주석가는 그니스를 비이스라엘 지파로 보는데 14절에 나오는 참여자에 대한 지나친 설명이 이 견해를 지지한다. 이 구절은 외국인이 어떻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 같다. 그니스인이 왜 헤브론을 유산으로 받았을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 맘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15:13의 논평을 보자.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는 여호와가 말한 대로 그가 유다 지파 가운데 한 부분을 주었다." 갈렙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게 한 것은 특별한 조치였던 것 같다.

사사기 4:17-22는 야빈의 군대 사령관인 시스라의 몰락을 이야기한다. 17절에서 야엘이 헤벨의 아내로 소개된다. 아울러 헤벨의 가문이 야빈 편에 있다는 사실이 언급된다. 이야기에서 야엘의 첫 행동(18절)을 묘사하면서 "야엘"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18-20절에서는 다른 주어 표시 없이 3인칭 여성 단수형 동사만으로 이야기가 이어져 나간다. 그러다 21절에서는 갑자기 그를 "헤벨의 아내 야엘"로 지칭한다. 야엘은 야빈/시스라의 편에 있던 가족의 구성원으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저자는 야엘이 누구의 가족인지 독자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이 기법은 룻기의 여러 곳에서도 드러난다. 1장에서 독자는 나오미의 아들들이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말을 듣는다. 그 중에 한 명이 룻이었다. 그 후 룻은 때로 "룻"으로 지시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명사로 지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룻은 여러 차례에 걸쳐(1:22; 2:2, 21; 4:5, 10) 더 긴 칭호 "모

압 여자 룻”으로 지시된다. 이는 매우 과다한 표현이지만 저자의 논점을 강조하고 있다. “룻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반복 표현은 룻기의 저술 목적과 관련하여 무척 중요하다. 그것은 어떻게 모압 여자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명예를 얻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룻 4:17). 룻은 단순히 아버지를 유혹하는 롯의 딸들의 후손이 아니었다. 룻은 2-4장, 특히 3장에서 조상 전래의 수치를 극복하게 될 모압 여자였던 것이다”(Buth 2009, 11).

사무엘하 13장은 이복누이 다말을 강제로 폭행하려는 암논의 계략을 그리고 있다. 다말의 첫 행동은 8절에 그려지는데, 여기서 그는 “다말”이라 지칭되며 암논은 뚜렷하게 “그의 오빠 암논”이라 불린다. 암논은 이어지는 여러 구절에서 접사형 인칭 대명사와 독립 인칭 대명사 및 이름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시된다. 그러고 나서 10절에서는 긴 칭호가 반복된다. “그는 그것들을 침실에 있는 자기 오빠 암논에게 가져갔다.” 저자는 이어지는 11절에 나올 요구가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그들의 관계를 부각하여 드러내고 있다.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와 바알 예언자 450명 사이에 있었던 대결에 관해 말한다. 흥미롭게도 엘리야는 17:1에서 단순히 “길르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 처음 소개될 뿐 예언자라 불리지 않는다.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그가 실제로 예언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는 대명사 또는 단순히 “엘리야”로 지시된다.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들더러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기도하고 외치고 팔짝팔짝 뛰고 자해하고 예언하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엘리야는 이 과정을 하루 종일 지켜본다. 그 후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하고 제물을 준비한다. 마침내 36절에 이르러 이런 말이 나온다. “예언자 엘리야는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오, 여호와여….’” 아주 절묘하게 저자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다. 즉, 바알 제의는 그들의 모든 의식과 그들의 모든 예언 행위와 관계없이 전부가 사기극이며 진짜 예언자는 엘리야였다는 것이다. 이 대결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예언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 모든 경우 참여자 지시에서 정보가 과다하다. 그러나 과다한 정보는 임의적이지 않다. 오히려 관련된 등장인물(들)에 관한 독자의 태도와 기대를 형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시 사용되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를 아주 경제적으로 이루어 낸다. 과다한 단어나 구를 적절한 지점에 배치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조잡할 정도로 뻔한 진술은 피하는 것이다. “그런데 라반은 아람인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적이었다” 혹은 “야빈의 동맹자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은

당연히 시스라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 대신에….”

따라서 이런 과다한 표현은 사실 등장인물에 관해 논평하는 아주 간결한 방식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어떤 특정한 속성을 강조하면서 독자에게 그 속성을 이야기의 해당 부분과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는 단순한 과다 표현이 아니라 정보를 절묘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번역자가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다 표현을 잘라내 버린다면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3. 과다한 참여자 지시의 번역

그렇다면 번역자는 그런 과다 표현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우리가 자라면서 읽었던 축자적 영어 번역본들은 과다한 참여자 지시를 결연하리만치 일일이 그대로 옮겨 놓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서 저자들이 서투른 이야기꾼이라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 영어는 참여자 지시를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여러 언어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아프리카 언어들에서는 과다하게 지시 용어를 사용하거나 갑자기 지시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면 이야기를 서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참여자를 가리킨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흔히 있다.

많은 번역에서는 과다 표현을 제거하는 편을 택한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9:7의 경우 어떤 번역은 히위인에 관한 언급을 완전히 빼 버린다. 예를 들어 Good News Arabic(아랍어), Nuovissima Versione della Bibbia(이태리어), 불가타 등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문체는 개선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연관성이 모호해지면서 문학적 긴장감이 사라진다. 다른 일부 번역은 히위인에 관한 7절의 언급을 삭제하긴 하지만 독자에게 기브온인의 국적을 알려 주려고 3절에서 이들을 소개할 때 명시적으로 히위인들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GNB와 Deftere Allah(카메룬 풀풀데어) 등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연관성은 유지되지만(독자가 3절의 진술을 7절을 읽을 때까지 기억할 수 있다면), 저자가 7절에 “히위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조성했던 긴장은 여전히 제대로 옮겨지지 못한다.

우리가 앞서 “조잡할 정도로 뻔한”이라고 묘사한 방식으로 그 관련성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여호수아 9:6-7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고 당신과 조약을 맺고 싶

습니다.' 이스라엘인은 이들이 실제로는 히위인이었으며 따라서 철저한 파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혹시 너희가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번역을 자문 위원이 통과시켜 줄지는 의문이다. Weber(2005, 54)는 다음과 같은 주의를 준다. "듣는 사람이 내포된 의미를 헤아리는 데 도움을 주려고 풀어서 설명하는 일은 …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 듣는 사람은 해석상의 보상을 기대하므로 첨가된 자료가 온갖 추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흔히 의도하지 않은 추론이 생겨날 수 있다."

반복되는 정보의 중요성에 독자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각주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GNB와 마찬가지로 FC에서도 3절에서 기브온인이 히위인이라 언급한 후 7절에서 히위인이라는 명칭을 뺀다. 그러나 5절에다 각주를 달아 그들의 속임수에 대해 설명하고 독자에게 신명기 20:16-18을 참조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언급했던 여러 번역보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각주의 문제점이 여기에도 적용된다(즉, 사람들은 대부분 각주를 읽지 않는다는 점, 많은 사람은 각주를 본문과 혼동한다는 점, 각주가 너무 많으면 주의가 산만해진다는 점 등). 흥미롭게도 CEV는 7절에 나오는 히위인에 관한 언급을 삭제한 후 "기브온인들"을 8절 중 첫 절의 주어로 놓고 각주를 달아 "히브리어 '히위인'"이라고 적어 놓는다. 이렇게 하면 영어의 문체를 존중하면서도 원문을 각주에 (본문 안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문자적 번역에 지나지 않는다. 독자가 부지런해서 모든 각주를 점검한다 하더라도 "히위인들"이라는 명칭이 어떤 중요성을 띠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독자에게 간결한 실마리를 조금 제공하는 것이 또 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조잡한" 예처럼 완전히 풀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함축된 의미와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모두 밝히지는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독립된 절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지리아 풀풀데어로 번역된 여호수아 9:6-7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관련 정보에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그래서 그들은 길갈의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갔다. 그들은 그와 이스라엘인에게 말했다. '우리는 어느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히위인이었다. 그러자 이스라엘인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때로는 초점이 되는 설명어를 적어 넣고 그에 이어 "즉"이라는 표현과 일상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31:20을 나이지리아 풀풀데어로 번역하면서 처음엔 "아람인"을 삭제했었다. 앞 절에서 그냥

"라반"이라고 하다가 여기서 "아람인 라반"이라고 하면 풀풀데어로는 지금 나오는 라반이 앞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라반이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라반이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말하는 저자의 함축 의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나중에 가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수정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람인, 즉 라반을 속이고 자기가 달아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것이 충분한 정보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 표현에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구약의 다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의 구절들 중에 "비록 ~지만"이란 표현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수 14:14 그래서 헤브론은 오늘날까지, 그가 비록 그니스인이었지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었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
> 삿 4:20-21 그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장막 문에 서 계세요. 누군가가 와서 여기 사람이 있냐고 물으면 없다고 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야엘은, 그가 비록 헤벨의 아내였지만,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그에게 살금살금 다가갔다.

룻기의 여러 구절에서 사용된 "모압 여자 룻"이라는 명사구는 요약문이나 법적인 공식 합의문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아마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21의 경우 이 표현이 이야기의 한가운데 (사실은 대화의 한가운데) 끼어들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많은 언어에서 분명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록 ~지만"이라는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 "룻이 말했다. '그분은 자기 종들이 추수를 다 끝낼 때까지 제가 그들을 따라다녀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비록 그가 모압 여자였지만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원저자가 강조하고 있던 다음과 같은 정보를 현대의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이스라엘인은 모압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었고 보아스의 너그러움은 놀라운 태도라는 점이다.

나이지리아 풀풀데어를 비롯한 일부 아프리카 언어들은 참여자가 일단 소개되고 나면 긴 칭호를 사용해 그 참여자를 지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자의 경험에 의하면 풀풀데어 화자들도 참여자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때로 한 단어나 짧은 구를(이름이 아니라) 사용해 참여자를 지시하기도 한다. 성서의 번역은 (훌륭한 미국식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름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설명을 잘라내는 경향이 있다. 어떤 언어에서는 이름을 잘

라내고 설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13:10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그가 다말에게 말했다. ‘네 손에서 받아먹을 수 있게 음식을 침실로 가져오너라. 그러자 다말은 자신이 만든 과자를 들고 침실에 있는 자기 오빠에게로 가져갔다.”

열왕기상 18:36의 경우 거짓 예언자 450명과 대조를 이루는 진짜 예언자 엘리야에 관한 절묘한 언급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많은 번역에서는 “예언자”라는 단어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빼 버리고 또 다른 많은 번역에서는 이 칭호를 문자적으로 옮기고 있지만 대부분의 독자는 그중 어떤 번역을 읽든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조그만 도움이 필요할 듯하다. “그 후 진짜 예언자가 다가왔으니 그는 엘리야였다. 그가 말했다….”

위에 제시한 방안은 그저 약간의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위에 언급된 여러 구절에 대해 더 나은 답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구절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절묘한 표현을 번역하려 할 때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나의 함정은 해당 정보를 번역 본문에 집어넣음으로써 본문을 형식적이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의 함정은 해당 정보를 너무 눈에 띄게 하거나 너무 많은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이야기의 요점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분명 경우마다 문맥이 다를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적절한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 법칙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함축적 의미를 알아내고 각 참여자 지시를 이야기 안의 기능과 적절히 연관시키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다시 표현해 내는 것은 인간인 독자의 몫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중요하다. 과다한 표현을 쓸데없는 포장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버려서는 안 된다. 과다한 표현은 중요한 정보를 전해 주고 있다.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 그 정보를 우리 번역에서 전달해야 할 것이다.

(투고 일자: 2013년 3월 5일, 심사 일자: 2013년 3월 6일, 게재 확정 일자: 2013년 3월 6일)

<참고문헌>(References)

Budd, Philip J., *Numbers*, WBC 5, Dallas: Word Books, 2002.

Buth, Randall, *Ruth the Moabitess*, Mevasseret Zion: Biblical Language Center, 2009.

Milgrom, Jacob, *Number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Walton, John H., and Victor H. Mattews,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Genesis-Deuteronomy*,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7.

Weber, David J., "A Tale of Two Translation Theories", *Journal of Translation* 1:2 (2005), 35-74.